

19일 전개공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에 정호윤 의원 등 11명 구성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에서 주관해 개최될 예정이다.

전북도가 지난 8일 전북개발공사 사장 김천환 후보자를 도의회로 인사청문을 요청함에 따라 도의회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들과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명 등 총 11명으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사청문회가 완료되면 위원장은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장이 도지사에게 송부하면 도지사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인사청문 대상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방자치력을 시작한 지 24여년 만에 처음으로 전북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 5개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전북도와 합의하고 지난 1월 16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호윤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걸맞은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인명하기 위한 자리이며, 도덕성과 전문성, 업무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며, 정실인사 코드인사 등

의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청문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후보자의 인신 공격, 흠집내기가 아니라 인물의 자질과 정책능력 등을 검증하는 장으로 만들 것이며,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사의 인사권 오남용을 견제하고 전북도 산하 공기업 등의 경영합리화 및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오늘 도의회 임시회 개회... 22일까지

내일까지 주요현안·교육·학예 행정 질문

전라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11일부터 제3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22일까지 12일간 각종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건 심의와 상임위원회별 현지의정활동을 펼친다.

특히 12일과 13일에는 주요현안과 관련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1일차는 이병도(전주3)·최현열(부안)·김이재(전주4)·이병철(전주5)·김정수(익산2)의원이, 2일차는 나기화(군산)·최영규(익산4)·두세훈(완주2)·황의탁(무주)의원이 도지사와 교

육감을 상대로 질문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기에는 '전라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총 17건(조례안 9, 동의안 5, 기타 3)의 의안을 심사한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월 16일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협약체결에 따라 오는 19일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첫 인사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문 대통령 개각, '현역 의원 ↓ · 전문가 등용 ↑'

지난 8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단행한 이번 개각의 특징은 '성숙함'이다. 지난 2기 내각때보다 평균 연령대도 높아졌으며, 현역 의원을 총 5명(이재호·유은혜·진선미)으로 줄이고, 박영선·진영(총 2명)으로 27.7% 비율로 내려앉았다.

그 빈 자리는 관료 및 학계 등 전문가들로 채워졌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전북에서 정무부처를 맡았으며 박양우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맡았다. 둘 다 행정고시 출신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통일연구원장,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KAIST 교수,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세계해양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에 들어서서 시점에서 전문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본격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인사의 콘셉트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를 맞아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신 지역으로는 호남권이 6명(진영·박양우·최정호·이재호·진선미·박상기)으로 최다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되고,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입각하면서 여성 장관 숫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총 4명이 됐다. 박영선·강경화·유은혜·진선미로 22.2%에 그쳤다.

지난 2기 내각 당시 여성 장관 비율은 27.7%였다. 그러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여성 장관 비율이 22.2%로 유지돼 왔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통령께서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고,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 상황과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목표를 맞추기 위해) 계속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고위 공직자 등용문으로 여겨지던 고시 출신은 8명으로, 2기 내각보다 2명 더 증가했다. 2기 내각 고시 출신은 총 6명이었다.

사법고시 출신은 진영 후보자와 진선미 장관, 행정고시 출신은 박양우·최정호 후보자와 이재갑·성윤모·홍남기·이재호 장관이다.

출신 학부를 살펴보면 서울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균관대는 4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연세대 출신은 2명이었다. 고려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한국해양대·전남대·공군사관학교에서 각각 1명씩 배출하며 출신 학교 구성이 다양해졌다는 평가다.

/뉴시스

'성숙함' 이 특징 지난 내각때보다 평균 연령 높아져
여성 장관 비율은 22.2%... 호남 출신 장관 6명
현역 의원 입각 38.8%→27.7% ↓ ... 전문가 비율 ↑

"국민 안전 최우선... 균형발전 노력"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 "다음 총선 불출마 마음먹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 어깨가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저지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추진해 오셨지만 수십년간 노력해온 지방자치 발전이 이번에는 반드시 한 단계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불출마의사를 밝혔느냐"는 질문에 그는 "나을 선거에 안 나가겠다는 마음을 먹은 지는 오래됐다"며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당연히 안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그를 등용한 게 탕평인사라

는 해석에 대해서는 "이번 내각의 면면을 잘 보지는 못했다"면서도 "생각지도 않은 제안도 많고 그런 의미도 있나(생각)하기는 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상당히 정치의 외중에서 했던 것 같다"며 "이제는 정치를 떠나면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 경제가 더욱 좋아지게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선인 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대표적 '친박(친박근혜)계'로 꼽혔다. 하지만 2013년 기초연금액과 국민연금에 연계해 지급하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면서 장관직을 사퇴했고 이후 '비박(비 박근혜)계'로 돌아섰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출마해 당선됐다.

/뉴시스

"엄중한 책임 · 소명감 느껴"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국토 균형발전 등 위한 SOC 확충 등에 역점 둘 것"



전북도 전 정부부처를 지낸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주거안정과 따뜻한 주거복지, 삶터와 일터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어주는 교통서비스, 국토의 균형발전과 한반도 신경제 실현을 위한 SOC 확충 등은 가장 역점을 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우리 경제가 미추한 현실이 극복되지 않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엄중한 책임과 소명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교통 SOC나 건설현장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도 대중교통과 수도 도시, 자율주행차, 제로에너지건축 등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언제나 국민 중심으로 판단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지난 30여년 간 국토교통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을 녹여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뉴시스

"국민 체감 실질적 성과 창출 노력"

조동호 과기부장관 후보자 "R&D 혁신 지속 추진할 것"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인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8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소감 자료를 통해 "과기정통부가 그동안 4차 산업혁명 대응과 R&D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먼저 R&D 20조원 시대의 R&D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과학기술인들이 창의적,

자율적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현장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5G, 데이터 인프라, AI, 바이오, 수소경제, 자율주행 인프라 등 미래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R&D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개혁과 새로운 산업, 서비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ICT 혁신을 통해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5·18 망언' 본격 수사

민병두 등 오늘 고소인조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른바 '5·18 망언'과 관련 이 발언을 한 해당 의원과 지만원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병두 민주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오는 11일 오후 2시 고소인 조사에 출석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지난달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김진태 의원은 영상메시지를 보내 "5·18 문재만담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며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직접 참석한 김순례 의원도 공청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종명 의원은 "5·18 사태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 운동이 된 것"이라며 "과학화된 사실을 근거로 북한군 개입 여부를 하나 하나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지씨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서민민생대책위와 5·18관련 시민단체 및 5·18 유공자인 더불어민주당 실훈·민병두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사진은 문화상 국회의장,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등 참석자들이 여성참여 50% 스티커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해찬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추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2석과 75석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제 개혁안을 당론으로 정한 것과 관련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어제 국민이 요구하는 의원 300명을 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수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안을 의중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등 10건의 개혁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협상하겠다"며 "야당이 우리 안에 대해서 불인하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안이 최선의 안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이 구가 합의한 것과 관련 이 대표는 "우리 당이 중재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선례를 보여줬다"고 자랑했다.

그는 "택시 기사 두분이 분신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4개월 간 협상에 마침내 어제 타협했다"며 "전현희 의원이 200만 가까이 사람을 만나며 협상해서 큰 타협을 했다"고 말했다.

/뉴시스